



부부사랑의 특징

이성웅 세례자요한 신부 | 대구대학교



성경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이죠? 저는 창세기의 한 문장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어떻게 이 구절이 성경 전체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 성경 구절은 남녀의 혼인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신랑에 교회를 신부에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혼인 잔치에 비유되고,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언급할 때도 혼인의 이미지가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24절은 단순히 혼인한 부부뿐만 아니라 바로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인 우리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처럼 부부사랑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특별한 성소입니다. 그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부부사랑은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부부사랑은 자유롭게 (Freely), 온전히 주고받는 (Totally), 충실한 (Faithfully), 그리고 열매를 맺는 (Fruitfully)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 특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까요?

먼저, 자유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은 전적인 자유에 바탕을 둡니다. 만약에 강제로 두 사람이 혼인을 한다면 그 혼인은 올바른 혼인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을 준다는 조건으로 혼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70억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오직 너 하나만을 사랑하겠다고 자유롭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배우자가 특별한 것입니다. 나의 자유의사 없이 강제로 누군가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배우자가 본인에게 특별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유는 부부사랑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둘째로, 온전히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부부사랑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부사랑은 몸과 마음이 함께 일치하는 결합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나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를 통해서 온전히 배우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일치로 나아가는 것이 부부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선물입니다. 셋째로, 충실한 사랑입니다. 혼인 서약을 할 때 부부는 어떤 상황에서든 사랑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기분이 좋거나 행복할 때만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도 아플 때도 그리고 미울 때도 서로 사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므로 충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내 감정을 잘 조절하기 위한 인내, 용서, 그리고 겸손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는 사랑입니다. 열매는 부부사랑의 결실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생명 출산으로 열려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위적으로 생명을 차단하는 피임은 생식능력을 선물로 주신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임은 내가 원할 때 부부관계를 맺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도구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연 주기법을 통해서 상대방을 기다려 주면서 인격적인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주어진 또 다른 생명을 하느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야 할 것입니다. 혼인의 네 가지 특성은 자유롭게, 온전하고, 충실하고, 열매를 맺는 사랑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